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미란



참여정부 시절에 세간에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이런저런 불평들이 많았지만, 나는 비교적 만족하며 지냈는데, 그것은 내 가까운 이들이 두루 혜택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 한 사람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2중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그는 정규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해 안정된 생활이 어려웠는데, 다행히 자녀들에게는 따뜻한 손길이 미치고 있었다. 아이들은 점심 시간에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먹었는데, 초등학생들에게는 방학 중에도 정성스런 도시락이 배달되어 오기도 했다. 컴퓨터나 영어 공부와 같은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에도 무료로 참여할 수 있었으며, 만 원 안팎의 돈을 내면 태권도나 피아노 교습과 같은 사교육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었다. 나는 학교로부터 새 컴퓨터가 이를 가정에 주어졌을 때, 아이들이 기뻐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낸 세금을 이렇게

쓰고 있는 나라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내 가까운 이들 중에는 마흔 중반을 훌쩍 넘은 나이에 대학에서 시간 강의를 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대로, 결혼을 하지 않고 고교분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대로 한 학기, 한 학기의 시간 강의를 얻어 내야 하는 불안한 삶을 꾸려 가고 있다. 자격은 갖추었으나, 교수로 임용될 기회를 얻지 못함으로써 견뎌내야 하는 경제적 고통과 심리적 열매감은 아는 사람만 안다. 이들에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것은 못했지만, 그나마 시간 강료자가 국립대학 기준 3만원대에서 5만원대로 인상되고, 프로젝트 형식이거나 미

취업 박자들이 대상으로 하는 학술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스펀을 조금 띄워 준 것도 그 시절의 일이었다.

내 가까운 사람 중에 전문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학위를 받고 실적을 쌓아야 하며, 교수가 되어서는 그 전공 분야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대학 교원으로서의 기본 조건은 같으면서도 재직하고 있는 대학이 2년제인지 4년제인지에 따라 급여의 체계가 다르다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아

주 없어지거나 삭감되어 복지와 분배에 대한 관심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감세와 규제 철폐,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 등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정책은 성장의 활력이 된다. 그러나 복지가 줄어드는 성장은 결코 인간을 위한 성장이 아니다. 고용의 불안과 교육 경쟁, 환경의 위기와 새로운 질병의 위협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처음 내어 놓았던 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불의를 일으켰던 두 가지 사항, 결식아동 25만 명에 대한 급식비 전액 삭감은 2010년 한시적 지원으로, 저소득층 장학금 및 이자 지원 제도의 폐지는 유지 및 확대로 우선 해결이 되었다. 그것도 다수 국민의 저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을 만든다.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지만 그 정부를 만드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보다는 휴먼 프렌들리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살게 되기를 바란다.

<전남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소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휴먼 프렌들리

닐까? 이러한 불공평이 시정되어 2년제 대학의 교수 봉급 체계가 4년제 대학과 같아진 것도 그 시절이었다.

정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제도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새해의 확정된 국가 예산안에서는 기초장애연금이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 입양의 예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난방비 지원,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와 실직이나 휴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이 아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홍용화



사회 성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제정·시행되는 모든 법령들은 우리의 입법 취지가 있지만, 특히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들의 자유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게 제한할 수도 있는 만큼 당대의 사회상과 고민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들 중 일부가 29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약식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세정 '조두순' 사건은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처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국회에서 통과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사회적 담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결과물이다. 위 법률은 살인, 아동·청소년 성폭력, 강도, 방화 등 11대 유형의 강력범죄 대상자의 구강점막을 채취하여 DNA 데

'형사 법제'에 대하여

한 법률' 및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입법절차를 걸쳐 올해 시행될 예정이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기존 종이 위주의 형사 기록 조제를 지양하고 형사소송서류의 전자화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서류를 철근으로 묶은 형사기록을 경찰-검찰-법원으로 송치하는 재래의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하여는 종이의 낭비, 소송절차의 과도한 지연 등의 문제가 지적되곤 하였다.

이번 입법은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재판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건처리기간이 현격히 단축되고, 발송 및 종이비용 등 연간 288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음주·무면허사건, 사건 발생부터 판결 확정까지의 소요 시간이 기존 120일에서 15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인들은 정보에 대한 빠르고 편리한 접근을 갈망하고 있는데, 구축 예정인 '온라인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나 자신의 형사사건 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세정 '조두순' 사건은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처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국회에서 통과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사회적 담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결과물이다. 위 법률은 살인, 아동·청소년 성폭력, 강도, 방화 등 11대 유형의 강력범죄 대상자의 구강점막을 채취하여 DNA 데

새로 도입되는 이번 법률들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과학기술이 형사사법절차에 활용될 수 있을 만큼 토착화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인들 적정한 운영이 없으면 예산만 허비하는 낭비행정으로 전락하고 만다.

새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실무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찰, 격려와 애정 어린 비판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울러 새해에도 계속 진행될 참고 인소환제도, 플라바게닝(plea bargaining) 등 형사사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주요 논의들에 대하여도 많은 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아이들에 무리한 키크기 전략 부작용도 염두해야

최근 한 유치원에 갔다가 낯선 운동을 하고 있기에 뭐 하는 거냐고 묻자 키크기 체조를 하는 거라고 귀뜸해줬다. 유치원 꼬마들은 "천장만큼 키 크고 싶어요." "김연아 언니만큼 크고 싶어요."라며 천진난만하게 대꾸했다.

키를 위해 우유를 무리하게 먹다 살만 찐 다든가, 혹은 비만으로 간수치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한다. 또 무분별한 성장 호르몬 치료는 척추가 한쪽으로 휘는 부작용을 낳

고, 지나친 성장 보조제는 성 조숙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후천적 노력이 키 크기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모의 키를 더해 아들은 13을 더하고 딸은 13을 뺀 뒤 2로 나눈 수를 자녀의 키로 보면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아빠가 170, 엄마가 160이라면 아들은 5센티의 오차를 감안해도 176 정도가 일반적이라는 것인데, 이런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인위적으로 키를 키우려고 하다 자녀에게 고층만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임윤빈·광주시 광산구 진곡동

기고

박만호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부터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할 계획이어서 전남의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는 매년 교원 수가 줄어들고 교과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교육의 질 하락도 우려된다.

전남처럼 소규모학교가 대부분인 농어촌지역에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할 경우 수도권 등 도시지역의 교원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가뜰이나 교원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은 더 많이

물론, 정부가 마련한 교원배치계획이 아무런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본 계획을 살펴보면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여건이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학생 수'라는 기준의 경제 논리에만 치우친 감이 있어 이대로 시행한다면 도·농간의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어려운 농어촌 교육의 현

'학급수기준 교원 배치' 都·農 분리하자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작년도에 210명의 교사가 타지역으로 떠났고, 올해에는 무려 783명이 떠날 것이라고 하는데 초·고령화된 농어촌지역의 경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도 교원부족으로 복식수업과 순회교사, 기간제교사로 대체되고 있는 농어촌 교육의 현실에서 교원의 수가 더 줄어든다면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미달된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할 수 없이 도시지역 등으로 떠나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20일 박준영 전남도지사 성명서를 내면서까지 정부의 교원배치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은 매년 수백 명의 교원이 농어촌을 떠나게 되고, 이로 인해 고령화된 농어촌지역은 더욱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절박함 때문이다.

<전남도 행정지원국장>

아기 좌우로 흔들는 행위 자칫 뇌손상 부를 수도

아기가 울거나 보채면 보통은 아기를 안아서 좌우로 흔들는다. 그러나 아기를 흔들는 방식이 자칫 아기의 뇌에 손상을 줘서 장애를 갖게 하거나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니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얼마 전 미국에서 유년체 본 기사인데 미국의 한 대학 연구기관에서 갓난 아이를 심하게 흔들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한 결과를 보도했다. 두 손으로 어린 아이의 인형을 들고 1초에 3번 정도 반복적으로 흔들어 봤더니 머리 무게의 10배가 넘는 압력이 가해지면서 목이 심하게 찌러졌다. 이어서 작고 연약한 갓난아이의 뇌가 두개

골에 부딪히면서 혈관이 끊기고, 신경조직까지도 파손됐다. 이런 피해를 입은 갓난아이의 뇌를 C/T로 촬영한 사진이 있었는데 혈관이 터져 피가 뭉친 부분이 하얗게 나와 있었다. 보도 심하게 부어 있었다.

연구팀은 갓난아이를 심하게 흔들 경우 그 충격은 아스팔트 바닥에 아이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뇌손상을 가져온다고 하니 임산부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부인과 보건당국에서도 이런 내용을 출산하는 임산부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정점순·목포시 대양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시설

광주 연구개발특구 지정 서둘러라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광주연구개발(R&D)특구' 지정이 임박했다고 한다. 광주시는 이달 중 시경계주변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이르면 오는 3월경 특구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지정될 광주R&D특구는 첨단 단계와 장성군 일대에 1천600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광주R&D특구는 지역의 미래 성장을 담보할 다양한 연구와 기업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연구개발과 생산·비즈니스를 아우르는 토털 서비스체제를 구축해 광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광주시가 R&D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기반시설 확충과 고용창출 등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국비 등 1조원 사업에 투입돼 15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고급효과와 함께 2~3만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광주R&D특구가 이 같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특구 활성화의 관련인 관련 연구소와 기업 유치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세종시를 광주 R&D 특구와 역할이 중첩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로 육성할 방침이어서 국책연구소 유체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 때문에 세종시 수준의 각종 세제 혜택과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광주 R&D 특구가 이렇듯 특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대덕 특구는 물론 광주와 비슷한 시기에 지정된 대구 R&D 특구의 차별화 전략 수립도 시급하다.

지리한 토지 가격과 풍부한 일조량 등 광주R&D특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광주가 동북아 최대의 '사이언스 파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R&D특구 활성화에 민관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지역경제 위협하는 '3고 역풍' 대비해야

글로벌 금융위기의 터널을 채 빠져나오지 못한 우리 경제에 '3고(高) 경고' 등이 켜졌다. 새해벽두부터 원화 가치와 유가,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3고 역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3고 시대가 현실화될 경우 기반이 허약한 지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상성경제연구소 등 국내 연구기관들은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면 수출전략의 본격화로 '3고 현상'도 재현될 것인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았다. 더욱이 올해의 3고 현상은 과거 2005~2007년 때보다 더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다섯 연속으로 내리며 34원 주저앉았고 원·엔화 환율도 심상치 않아 기업들이 이준고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 하락 속도가 문제다. 완만한 하락세는 기업 체질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급락 추세에서는 기업이 적용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도 15개월래

최고로 치솟는 등 기업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다. 기준 금리는 인상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국고채, CD 등 시장금리는 0.25%포인트씩 3~4차례 인상분을 미리 반영해 높아진 상황이다.

지역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3고의 역풍은 치명적일 수 있다. 환율 및 원자재가 폭등은 그렇지 않아도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한계상황으로 치닫게 할 수 있다.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은 물가를 자극해 서민가계의 주름살을 더 깊어지게 한다. 금리인상 또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가운데 빚만 늘어가는 서민가계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 수 있다.

당국은 3고 역풍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환율·유가·금리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 적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역기업과 가계도 재정 건전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無等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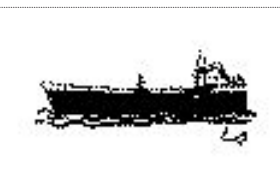
남극은 지금 여름이다. 지구상 가장 춥고 건조한 땅이지만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가 가장 따뜻하고 바람도 잔잔한 편이다. 공중 얼어붙었던 빙하도 살포시 녹아 선박의 접근이 용이해진다. 때문에 매년 남극을 찾는 2천여 명의 과학자나 연구원, 남극점·우극 탐사대원을 상당수가 이 시기를 이용해 대륙 진입을 시도한다. 최고봉인 빈슨

매시프(4,897m)를 등반하려는 산악인이나 펭귄·빙하 탐방 관광객들도 마찬가지다. 기지 상주원들엔 신선 식품이나 유류 등을 보급받기 시기가기도 하다.

김조지섬의 세종과학기지에서 연구활동과 기지운영을 담당하는 월동연구대도 매년 12~1월 사이에 교대한다. 지난해 말 파견된 23차 월동대 18명은 내년 1월까지 14개월간 머물며 남극의 대기, 지질, 해양환경,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광주·전남 출신으로는 윤종연(고흥대기 연구원)·정귀성(중장비 조종)·이이진(공중보건의) 등 3명이 포함됐다.

우리나라 연구팀은 그동안 대량의 가시화드레이트와 운석들을 찾아내고, 혈액을 안전하게 냉동보관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성과를 냈다. 하지만 극지 연구 인프라는 열악하기만 했다. 때문에 매년 남극을 찾은 2천여 명의 과학자나 연구원, 남극점·우극 탐사대원을 상당수가 이 시기를 이용해 대륙 진입을 시도한다. 최고봉인 빈슨매시프(4,897m)를 등반하려는 산악인이나 펭귄·빙하 탐방 관광객들도 마찬가지다. 기지 상주원들엔 신선 식품이나 유류 등을 보급받기 시기가기도 하다.

아라온호



스(Cape Burks)' 주변을 돌리며 쇄빙 능력을 시험하게 된다. 아라온호는 바다를 뜻하는 우리 고유어인 '아라'와 전부 또는 모두를 나타내는 '온'을 붙여 만든 이름이다. 남극과 북극은 물론 세계의 바다를 누비게 될 아라온호의 위용은 상상만 해도 든든하다. /정후식 경제부장 who@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